

# ‘안희정 쇼크’ 민주 역학구도 급변

### 8월 전당대회 출마 차기 대표는 ‘관리형’으로

### 대선주자 이재명·박원순·김부겸 주목도 높아질 듯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민주당 내 역학 구도와 차기 대권 경쟁구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충남지사 3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안 전 지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곧바로 2022년 대선을 목표로 중앙정치에서의 활동 방향을 넓힐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 관측도 있었다.

우선, 안 전 지사가 낙마하면서 당내에서 친노(친노무현)계가 다소 힘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당의 중심은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노계가 장악하고 있지만 안 전 지사의 사태로 인한 도덕성 이 상치를 입은 탓에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안 전 지사가 빠지면서 현재 거론되는 대표 경선 출마 예상자는 이해찬·이종걸·송영길·우원식·이인영 의원 등이 있다.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지는 못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때문에 차기 대표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관리형’으로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후보들 중 뚜렷한 친문 인사가 없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친문(친 문재인) 그룹에 대한 구애 경쟁도 더 심화할 것이라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안희정 사태로 차기 전대는 누가 더 문 대통령을 잘 도울 것인가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21.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던 안 전 지사의 퇴장으로 민주당의 차기 대권경쟁 구도도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경선에서 근소한 차로 3위(21.2%)를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중도에 하차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주목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 일단 나온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총리는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총리 역할을 무난하게 해내며 친문세력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밖에서는 우클릭을 하며 통합행보를 하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친노 핵심인사였던 안 전 지사가 빠지면서 친노 그룹에서 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친노 최장인 이해찬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 안팎으로 반대세력이 많이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자제했지만 안 전 지사의 낙마로 친노 그룹 전체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 의원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냐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차기 경쟁을 거론하기는 성급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후보 검증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 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력 주장 논란

### 전남경찰, 내사 착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성 3명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안 군수가 2014년 9월과 11월, 12월 군수실과 모텔, 차 안에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보도했다.

한 여성은 “너무 억울해 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보관하고 안 군수에게 항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저에 대한 음해성 보도는 사

실무근이고 허위사실을 조작해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행사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군수는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러한 음해로 선거를 어렵게 하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배우세력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군수는 이날 오후 성폭력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여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안 군수는 비서실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미투 운동에 편승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상대를 죽이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성추행 의혹’ 정봉주

### 서울시장 출마선언 연기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7일 예정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연기했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순환(연트럴파크)에서 진행키로 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서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 출마 선언을 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이날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당시 기자 지망생 신분 이던 현직 기자 A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공보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 6·13 선거 현장

### ‘광주시장 출마’ 이용섭 일자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뛰어들어 이용섭 예비후보는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자리 확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구인-구직 지원형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시행 ▲온리원(ONLY ONE) 전략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혁신 ▲일자리 중심 시장운영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 ▲일자리기업 투자유치활동 강화 ▲일자리 양극화 개선 등이 반영됐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경제 어려움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며 “광주 경제 여건·고용구조 변화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핵심 공약으로 12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빛그린산단-도점산단-광주역-광주공항’을 미래산업 및 국제관광도시로 특화된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자는 계획 등도 제시했다.

### ‘서구갑 재선거 출마’ 김명진 출판기념회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서구문화센터에서 자전적 회고록 ‘명진처럼’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국회전문가, 광주의 일꾼’이라는 부제의 이 책에는 김 전 행정관이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당대표·원내대표 비서실장을 6번 역임하기까지 다양한 정치 경력의 담겨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출판기념회에는 지역 사회 직능·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평화당 지도부·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정인화 전남도당위원장, 천정배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등 평화당 소속 정치인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며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국회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출생한 김 전 행정관은 북성중·서석고·한국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정치학 석사)했으며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 및 특보,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 김성환 동구청장, 민주평화당 입당 선언



옛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 청장은 “광주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평화당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비록 광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택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호남권 국회의원 대부분이 함께한 민주평화당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평화당이 민생·민주·개혁을 이끌며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동구청장 출마’ 임택 10일 출판기념회



광주 동구청장 출마선언을 한 임택 광주시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에 동구 KT빌딩에서 자신의 책 ‘이웃이 있는 마을’출판기념회를 한다.

이 책에는 임 의원의 어린 시절과 학생·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젊은 시절, 정계에 입문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담았다. 또 동구 발전을 위한 그의 다양한 생각도 곁들여졌다.

임 의원은 “경쟁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곁에서 따뜻한 동행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서 “친근한 이웃이 있어 늘 정경기만 한 고향마을처럼 동구를 행복 지수가 높은 마을공동체로 일궈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 장석웅 도교육감 후보 “간부 50% 여성 할당”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교육정 간부 50% 이상 여성 할당제’를 공약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어 “임기 내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장·장학관·사무관 여성 비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장 13.6%, 장학관 34.8%, 사무관 이상 16%를 차지하는 여성 간부 비율을 매년 늘려서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에 근무하는 평균사(1만9383명) 남녀 비율은 43%대 57%이며, 교육공무원(4245명) 남녀 비율은 61%대 39%로 간부급 남녀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장 예비후보는 “양성평등과 존중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 해결해 나갔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 전남 교육계와 도민 의견을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김보현 전 광주시의원 서구청장 출마 선언



광주시의회 김보현 전 의원이 6·13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하는 서구, 품격있는 서구를 만들겠다”면서 “구성운영의 기본원리는 소통의 협치와 합의적 협업이 양 수레바퀴가 될 때만이 가능하고, 한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 저변의 인문학적 토대와 일상적 문화예술의 향유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서창지역 광주에너지밸리 조성 계획 확대 반영 ▲상무지구 소각장 부지 복합문화센터와 연계되는 메디컬 헬스파크 추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는 구도심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집중 건립 ▲중앙공원 국가공원화 추진과 대안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광록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